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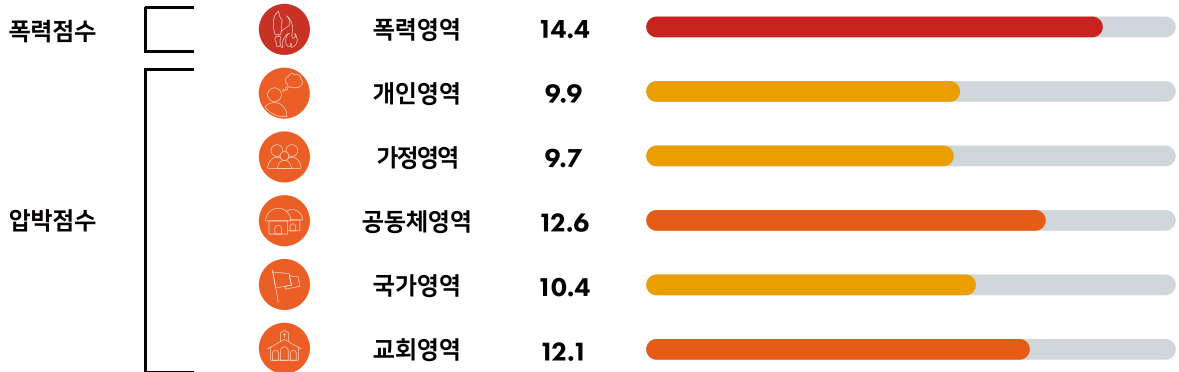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에티오피아 (ETHIOPIA)

기독교 박해지수
32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6×16.7=100)

중요한 발견

비전통적 기독교 단체들은 지역 당국과 에티오피아 정교회 (EOC) 모두에게 고초를 겪는다, 특히 정교회가 매우 지배적인 지역에서 가장 가혹한 침해를 받고 있다. 동부와 남동부의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과 정교회 출신의 "종파적 개종자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심한 박해를 받는다. 어떤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이 사회 자원에 접근이 거부되고 배척을 당한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와 오로미아 일부 지역에 있는 교회는 이슬람 폭도에게 쉽게 공격을 받는다. 더구나 지난 3년 동안 지속된 정치적 폭력은 기독교인들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키고, 티그레이, 오로미아, 암하라 지역에서는 억압과 폭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에티오피아 (ETHIOPIA)

국가 정보

지도자 : 아비 아메드 알리 수상

인구 : 123,771,000명

기독교인 수 : 74,679,000명¹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연방제 의회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74,679,000	60.3
무슬림	42,402,000	34.3
민족종교주의자	6,531,000	5.3
불가지론자	89,100	0.1

출처²

에티오피아는 정체성을 종교가 아닌 민족으로 표시한다. 종교에 기반한 갈등이 여전히 발생하지만, 에티오피아의 불안정은 주로 민족 기반의 무장 집단과 관련이 있다. 2020년 11월, 민족 기반 정당인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 (TPLF)과 연방정부 간의 의견 불일치로 큰 분쟁이 발생했고, 정부는 이를 "법과 집행의 작전"이라고 불렀다. 인민해방전선 (TPLF)은 지역정부에서 제외되었고, 의회는 과도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2021년 6월, 정부군이 철수하고 TPLF가 이 지역에 다시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를 남쪽으로 밀어내고 아파르와 암하라 영토까지 깊숙이 침투했다. 유엔에 따르면 분쟁이 잠시 중단된 후에도 티그레이, 암하라, 아

파르 지역은 긴장이 계속되고 국내 실향민 (IDP)과 인도주의적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2022년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에서 TPLF와 연방 정부 간의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오로미아와 암하라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민간인의 사망, 파괴,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문제이다.

2018년 7월에는 에리트리아와 평화 조약이 체결되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된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지난 10년간의 강력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빈곤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정치, 사회, 종교 콘텐츠가 차단되고, 연결망이 의도적으로 중단되었으며, 특히 티그레이 전쟁과 관련하여 정부와 평론가들은 온라인 토론을 조작하였다.

에티오피아는 기독교를 국교 (EOC)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이며, 더 이상 교회가 그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정치 분야에서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개신교 운동은 그들의 비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¹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² 정보출처: Others include Chinese folk, New religionist, Sikh, Spiritist, Taoist, Confucianist, Jain, Shintoist, Zoroastrian. Data source: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2023년 3월)

에티오피아 정부와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선언문 11호의 제정으로 인해 에티오피아 복음신자 교회와 교인에게 법적으로 증명하는 선언문인 1208/2020은 상당히 개선된 신호이나, 그 영향은 아직 국내 지역이나 하위 행정 구역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에티오피아 내에서 기독교인을 대적하는 침해의 지리적 분포는 어느 지역에 어떤 핍박이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기독교 교파 보호주의' 단체로 인한 침해의 온상지는 암하라 지역, 티그레이, 오로미아의 일부 지역이다. 이슬람 탄압의 온상지는 동부와 서부 오로미아 일부 지역, 아파르, 소말리 일부 지역이다. 구라게, 실테, 알라바는 침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일부이다.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국외 거주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박해 점수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정교회 (EOC)는 에티오피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에티오피아에서 종교 자유 침해의 역학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며, EOC는 그 자체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침해의 가해자로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주로 정부와 이슬람 급진주의에 의한 침해를 받고, 또한 부족주의가 지배적인 지역에는 EOC의 압력을 받는다. 정교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에티오피

아 북부와 중부에 집중되어 있다. 무슬림이 지배하는 지역 국가 (예: 하라리, 소말리아, 아파르)와 지역 사회 (예: 실트종)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기독교 개종자들

이 범주에는 i)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 ii) 종파 간 개종자, iii) 민족 전통 신앙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 나라의 개종자들은 다양한 박해 출처에서 오는 공격을 받는다. 무슬림이 지배하는 지역의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주로, 가족, 친척, 지역사회 지도자, 비기독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압력과 폭력을 당하고, EOC (인민해방전선)가 지배하는 지역은 주로 EOC 추종자들이 폭력을 주도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마이베레 키두산이라는 EOC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다. 또한 개종자들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부 지방 당국으로부터 침해를 겪는다, 종파 탄압이 만연한 지역의 개종자들은 민족 전통 신앙을 고수하려는 사람들과 종교 활동에 참여를 강요하는 무슬림에게 박해를 당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에는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큰 침례교, 복음주의, 오순절 교단이 있다. 이 공동체들은 주로 정부, EOC와 이슬람 단체로부터 심각한 침해를 겪고 있다. 이들은 다른 유형의 기독교에 비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무슬림과 정교회가 지배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개신교 신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권리 침해를 받고 있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근원

이슬람의 탄압:

급진 이슬람은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자라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독교는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강해지는 압박으로 인해 더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무슬림이 다수인 농촌 지역에서는 공동 자원에 접근을 막고, 기독교인들은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온 개종자들은 상속권이나 자녀 양육권 같은 가족으로서의 권리도 박탈당한다. 이웃 소말리아와 수단에서 성장하고 있는 급진 이슬람이 에티오피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교파 보호주의:

이는 주로 에티오피아 정교회 (EOC)가 주도하며, 교회 내부의 마비헤레 키두산 급진 집단에게 영향을 받는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서구 종교의 추종자로 여겨져, EOC가 오랫동안 지켜온 민족주의와 문화를 위협하는 인물로 간주된다. 또한 이들에게서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설교와 노래를 듣는 것은 흔한 일이다. EOC는 개신교 가입을 위해 탈퇴하거나, EOC 내에서 갱신 운동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에 대해 자행하는 공격은 심각하다. 그들이 행하는 침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EOC 소속 회원은 정부와의 인

맥을 이용하여 비전통교회의 발전을 미리 자르고, 때로는 기독교인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기도 한다. 이런 위반은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교회를 따르는 북부와 중부 지역에 만연하다.

독재 정치:

이전 몇 년 동안 에티오피아 정부는 더 권위적이 되어 시민 사회 단체와 종교 기관에 제재를 가했다. 이전의 정부는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해,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씨족의 압박:

지난 25년 동안 부족 정치가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지배해 왔다. 1974년까지 EOC는 국교였다. 에티오피아는 1974년부터 1991년까지 공산주의 통치를 받다가 17년간의 내전 끝에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연합으로 전복되었다. 1991년 에티오피아 과도기 현장에서 각 민족은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약속받았다. 이후 정부는 일부 민족 집단 안에 기독교에 대한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아파르와 소말리아와 같은 지역은 이슬람이 종족과 연결되어 있다. 다른 부족들은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부족 싸움에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만일 기독교인들이 거절할 경우에는 보복을 가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종종 비기독교인과의 결혼을 위한 납치와 강제 결혼의 형태로 발생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종교를 따르게 한다. 강간은 여성 기독교인을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지역 사회에서 고립, 가족 수치심을 일으키고, 향후 결혼에 제한을 초래한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여성은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으며 가족에게 고립, 가택연금, 신체적 학대, 상속 재산 상실을 당하고, 기혼자의 경우는 이혼과 자녀 양육권을 상실하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전형적인 압박 지점:

- 납치
- 사회 공동체 / 연결망 접근 거부
- 자녀 양육권 박탈
- 상속 및 소유권 박탈
- 교육을 통한 차별 / 괴롭힘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강제 퇴거
- 가족에 의한 감금
- 폭력 - 신체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기독교인 남성은 신체적 공격, 강제 이주, 강도, 심지어 살해를 당할 수 있다. 이들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전략적인 표적이 되고, 이들을 공격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약화된다. 개종자들은 공격과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여야 한다. 국가는 또한 무슬림이 지배적인 지역에서 기독교인 남성을 투옥함으로써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의 선거와 임명에 정부가 간섭한다. 교회의 지도자는 대다수가 남성이므로 이것은 주로 기독교인 남성에게 영향이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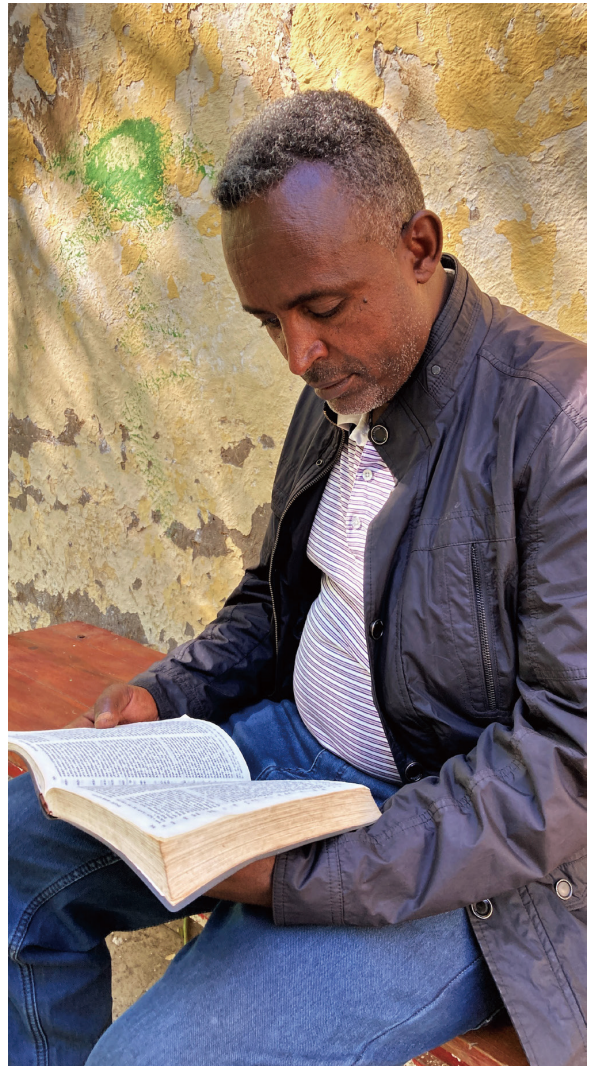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상속 또는 소유권 거부
- 도시 / 나라에서 도피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 - 신체적 / 죽음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4	32	69
2023	39	66
2022	38	66
2021	36	65
2020	39	63

2024 월드와치리스트 보고 기간 동안 기독교에 대한 폭력이 두드러지게 상승하여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런 급증으로 인해 전체 점수는 2023의 66점에서 2024년 69점으로 상승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Freedom House의 2023 에티오피아 세계 자유 지수에 따르면: 2022년 11월, "암하라어를 사용하는 무장 세력이 오로미아 동부 월레가 지역의 한 마을에 있는 개신교 교회를 습격하여 교회 지도자를 포함한 예배 참석자 15명을 살해하였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공격을 당하거나 폐쇄된 교회들 또는 기독교 건물들	살해당한 기독교인	기독교인의 재산/사업의 손상이나 피해	구금당한 기독교인들
2024	284	15	14	24
2023	22	2	10	20

이 표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에서 몇 가지 범주 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 수가 주어졌고 (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개인 영역

무슬림 주류 지역의 이슬람에서 개종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배신이자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족과 사회에서 처벌당할 수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개종으로 명예를 손상시킨 가족에 대한 압력은 엄청나다. 북부 에티오피아에서는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배척당하고 공동체를 떠나도록 강요받는다. 정교회 가르침에 반하는 복음 음악이나 성경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때로는 개종자가 마귀 들렸다는 이유로 "성수"를 마시게 한다. 온라인으로 자신의 신앙을 말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에티오피아 남부와 오로미아 지역은 개신교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개종자들이 이러한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다.

가족 영역

어떤 지역에서는 기독교인 자녀들이 놀림을 받고 공격까지 받는다. 무슬림이 주류인 지역에는 기독교인 자녀들이 이슬람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정교회 출신의 기독교인이 개신교에 가입할 때 EOC에 속한 가족이나, 사제나, 극보수 단체는 믿음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가한다. 무슬림 지역과 EOC 지역에서 매장지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공동체 영역

EOC 주류 지역에서 EOC를 떠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안전하게 다닐 학교를 찾아야 하는 것과 같은 공동체 영역에 심각한 도전에 당면한다. 무슬림 다수 지역, 특히 시골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차별과 괴롭힘을 당한다. 에티오피아에서는 특히 농촌 지역 개종자들의 11세 이하의 어린이를 납치하여 강제 결혼시키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 기독교인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감시를 받고, 심지어 교회와 기독교인의 가정을 감시하기 위해 아이들을 스파이로 보내기도 한다.

국가 영역

이전 정부에서 만든 법률은 종교 방송과 종교 교육을 제한했다. 특히 소수 기독교 단체의 개종자나 추종자들이 기독교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시민 사회 단체는 계속하여 법의 제약을 받았으며, 새 정당은 수 년 동안 결성되지 못했다. 현직 당국은 EOC 또는 무슬림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비 EOC 기독교인들은 차별 당한다. 많은 무슬림과 EOC 설교자들은, 오순절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외국 원조를 받기 위해 거짓신앙으로 위조한다고 주장하며 비방한다. 그에 대응하여 오순절 목회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교회 기독교인에게 그들은 뒤를 향해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였다.

교회 영역

새로운 교파 목회자들은 이슬람이 지배하는 농촌 지역과, 기독교 교파보호주의가 지배하는 농촌에서 억압과 괴롭힘을 당한다. 목회자들은 가장 눈에 띄는 표적이 되며 사회적 가치를 타락시킨다는 비난을 받는다. 선동

가들에 대한 발언은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 급진 이슬람 단체와 같은 비국가 행동가들은 기독교 활동을 감시하고 예배 중에 교회를 공격하여 교회 재산을 파괴하는 사례도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개종자들은 특히 취약하며 공격이 두려워 신앙을 숨기려 한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에티오피아는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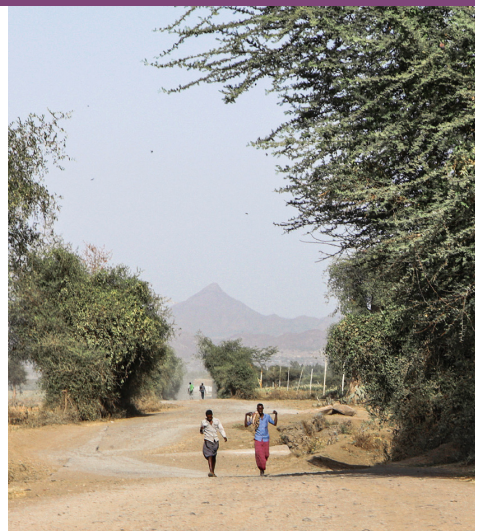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협약 (CAT)
4.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5. 유엔아동권리협약 (CRC)

에티오피아는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 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배척을 당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부당한다 (ICCPR 제 18조)
- 기독교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박탈한다 (ICCPR Art. 19)
- 기독교인들의 평화로운 종교적 집회를 제재하여 평화 집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ICCPR Art. 21)
- 기독교인 여성들이 강제 결혼 당하고 자신의 믿음을 철회하게 한다 (ICCPR 제 23.3조 ; CEDAW 제16조, ICESCR 제10조)
- 기독교 여성들은 결혼 생활 동안과 해체 시에 동일한 권리와 책임이 거부된다. (ICCPR 제 23.4조, CEDAW 제16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에티오피아의 소수 종교인들은 방송 법, 신앙의 역할에 대한 교육, 시민 사회 법으로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시민 사회법에 의해 정교회와 가톨릭, 무슬림,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종교 단체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법에 따르면 종교 공동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명, 사역이나 협회를 등록하려면 최소 15명의 회원이 있어야 등록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신생 소수 종교 단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일부 지역에서 물몬교와 여호와 증인이 (신도 수가 50명 미만일 경우) 공식 예배 장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다수 집단이 소수 종교에 적대적인 것으로 알려진 곳에서는 더욱 그렇다.



오픈도어의 에티오피아 사역

오픈도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에티오피아 교회를 지원해왔다. 우리의 비전은 박해에 맞서 잘 훈련되고 연합된 교회가 총체적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힘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 박해 대비 훈련 및 지원
- 기술 훈련과 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한 여성과 청년 사역 참여
- 경제적 강화와 박해 대응, 성경적 대응의 훈련을 통한 새 신자 사역을 강화

